

청양한인교회 공동 기도제목(20200719)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 주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도우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교회공동체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9시 기도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문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교국을 통해서 진행되는 임시 종교활동 장소 허가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중간 하늘길이 열려서 출입이 자유롭게 하옵소서. 비자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예품부 자녀부터 청소년부 자녀들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꼭 시간을 지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각 부서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헌신하며 준비하는 과정이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대학입시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 매일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영적인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래서 마음에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 하지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족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목장이 모이기에 열심을 내서 정상적인 목장모임을 하게 하시고 목장의 본질인 영혼구원하여 제자삼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장에서 섬기던 VIP를 끝까지 잘 섬기게 하시고 생활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막힌 것들이 열리고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런 모든 상황속에서 예수믿는 성도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